환경속에 자연처럼

배규덕 / '41년生. 수필가로서 "행복한 웃음소리"外 다수의 수필집을 냈다. 수필가협회 회원으로 영남아동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가족구성은 그야말로 이제 핵가족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가족수에 있어서도 미니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의 산아구호도 이제는 "한 자녀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은가? 국가적, 세계적 차원으로 볼 때는 당연하다. 그러나 인간이 모체에서부터 한 개체로 떨어져나와 '한 자녀'로서 자라는데 있어 그의 인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상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 인간상실의 원초적인 역할에 촉매적 작용을 하고있다.

최근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 집중으로 수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단위주택보다 아파트 건축이 용이함을 누구나 수긍하리라. 적은 자녀수에 대한 과잉보호, 핵가족으로 인한 실조부모 관계, 한 자녀로 인한 형이나 동생, 언니, 오빠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역할수행 상실, 이러한 것은 현대 어린이가 장차 성인되었을 때 전인적인 인격형성에 절름발이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이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절대진리를 무시하고 이제 20세기 문명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 편리하도록 콩크리트와 철의 문화를 도입하여 석벽, 철벽화 하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 인간 외부와의 단절을 가져왔고, 내적으로는 인간상실의 결과를

나폴레옹은 코르시카의 검푸른 바다를 벗했고 사형수는 콩크리트벽을 기대지 않았는가

■ 계곡 등지에 널린 쓰레기는 자연과의 교감을 차단시키는 원인이다.

초래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집단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치석이 생기면 이빨이 잇몸에서 솟아나와 뿌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인간은 삭막한 현대문화에 밀려 흔들리고 있다.

특히 자라는 새 시대의 어린이는 그들의 건전하고 튼튼한 심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자연과의 교감을 넓혀주어야만 앞으로 밝고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영역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정신적면과 신체적인면에 많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공급하고, 비록 아파트 거주를 하더라도 많은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그들과 함께 항시 대화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농촌을 찾고 자연을 노래하도록 많은 여행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언어가 그러하고 행동이 그러하며 사상이 그러하다. 푸른 바다를 벗하면 넓고 시원할 것이고, 콩크리트 벽만을 벗하면 좁고 비열할 것이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의 검푸른 바다를 벗했고 사형수는 콩크리트벽을 기대지 않았는가. 인간 성격이 자연과의 교감에서는 원만하고 포용력있는 인격이 형성되지만 인간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산물위에서만 교감한다면 영리하기는 하나 삭막하고 편협한 성격을 소유하게 된다. 부모들은 새롭게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좁은 공간이나마 식물과 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꽃과 나무, 고기와 새를 길러서 수없는 아름다운 색깔을 맛보게 하고, 생명을 갖고 움직이는 자연의 소리와 아름다움을 어릴 때 마음속 깊이 새겨지도록 심어주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이 심어지게 되고 자연처럼 맑고 밝아지게 되며 비로소 인간이 환경속에 자연처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